

‘민주 사랑방’ 공동 흉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 본격화

5·18사적지 29호...광주시, 매입·보전위해 추경 예산반영 화순 생가터 복원사업도 추진...추모사업 등 탄력 받을 듯

광주시가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된 동구 공동고 흉남순 변호사 가옥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7년 9월 11일자)과 관련,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 집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흉 변호사가 살면서 광주지역 민주인사들과 교류하던 ‘민주 사랑방’ 역할을 했다. 특히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209번지 일대 흉 변호사의 생가터(383㎡)에 목조 초가(84.24㎡) 형태로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흉 변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흉 변호사의 공동 가옥을 매입·보존하기 위해 5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 예산을 흉 변호사의 가옥과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데 쓸 계획이다.

광주시 동구 공동 15-1번지의 이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곳이다. 그동안 광주시 등이 이곳을 보존하려 했지만 가옥이 너무 낡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소유여서 구체적인 복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건물 면적이 51.23㎡로 비좁아 보존에 애를 먹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사적지 대부분이 공터와 길거리나 공공건물이어서 별다른 보존이 시급하지 않지만 흉 변호사의 가옥은 소유권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구체적인 보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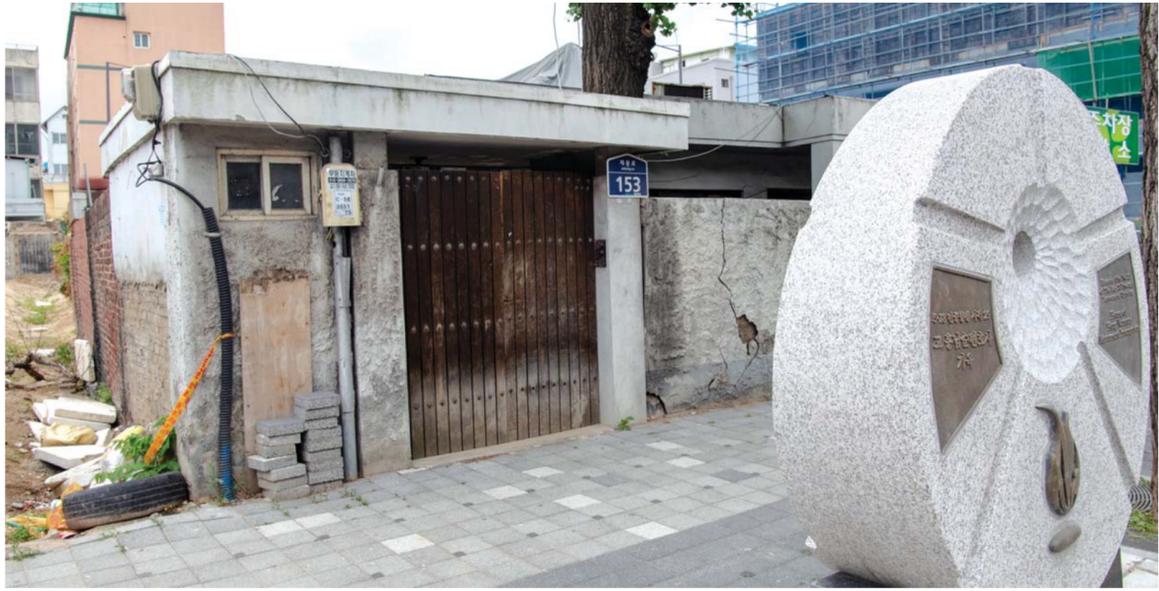
이에 따라 흉 변호사에 대한 추모사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재야인사

와 국내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흉 변호사를 기리는 흉남순기념사업회를 구성했고 광주시도 5·18 사적지로 지정하고 지정석 등을 설치했다.

한편, 2006년 타계한 흉 변호사는 1963년 공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0년 5월에는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

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사적지인 광주시 동구 공동 흉남순 변호사의 집 곳곳에 금이 가고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공보의 637명 배치 목포·여수·순천 2명씩 1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인해 목포·여수·순천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줄어든다.

전남도는 오는 11일 공중보건의사 637명을 보내 시·군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새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배치 공보의는 의과 334명, 치과 93명, 한의과 210명 등으로 의과(8명)·치과(4명)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648명)보다 11명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신안(62명)이 가장 많고 완도 49명, 고흥 40명 등이다. 이들은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립병원,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군 제대 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의대 진학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인규 25만 이상인 목포·여수·순천지역 보건소에 배정됐던 공보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목포·순천·강진의료원에 배정됐던 공보의도 전년도에 각각 1명씩 줄여 배정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목포·순천의료원은 각각 5명에서 4명으로, 강진의료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된 화순군에 대해서도 기존 응급의료기관에 배정됐던 공보의(1명) 후임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끝난지 언젠데...선수촌 사용료 소송 5년째

성공 개최 각종 기념사업 추진 차질 U대회 조직위원회 아직 청산 못해

광주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폐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5년째 이어지면서 대회 성공개최 동력을 이어나갈 각종 기념사업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회 성공 개최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었던 U대회가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법정 소송이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년 5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U대회가 끝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직위원회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지 중이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U대회 수익금 정산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U대회 선수촌 법정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시작됐다.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조합 측은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시점인 지난 2015년 5월부터 대회 종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는 2016년 3월까지 최소 11개월씩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36억원을 제시했다. 시는 임시사용 승인 시점부터 대회 폐막 뒤 선수촌을 넘기는 9월까지 5개월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이 주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기간(5개월)과 입주자 점검기간(1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 측은 주장이 엇갈리면서 1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고, 결국 지난 2017년 7월 14일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양 측은 모두 항소했고, 10

개월 뒤인 2018년 4월 6일 2심 재판부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 측은 또 대법원에 각각 상고하면서 10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서 4년 5개월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조합 측이 주장한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포함한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봤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의 청구금액 467억원 가운데 83억원 만 인정했다.

이처럼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성공 대회로 기억되어야 할 광주 하계U대회의 각종 기념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조직위는 대회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100억원을 출연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회 성공 동력을 광주 발전과 연계하려는 각종 기념 사업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4년이 되어가도록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 결과에 따라 대회 수익금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다, 최종적으로 대회 정산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위에는 광주시 직원 2명이 파견돼 상주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종 대법 판결이 언제 나오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법정 소송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이를 광주시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각종 기념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조직위를 청산한 뒤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쑨시엔위 주광주중국 총영사 광주시민 됐다

시, 교류사업 협조 공로 명예시민증

광주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쑨시엔위(孫繼存·사진) 총영사의 공로를 인정해 1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광주시는 시정발전기에 기여한 내·외국인과 관내법원, 검찰청 등 주요 기관장 중 광주시 출신이 아니면서 시정발전기에 기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의회와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광주 명예시민이 된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쑨시엔위 총영사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광주에서 2년여 간 총영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중국정부와 광주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중국 외교부장관 등 고위직 간부들이 광주를 방문할 때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또 차이나센터, 주상하이사무소 개소 등 대중국 교류협력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쑨시엔위 총영사는 광주시민, 중국외빈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중·문화소개 및 광주소재 주요기관 및 시민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도 맺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육 · 교통 · 생활 프리미엄 3박자를 갖춘
영암 현대삼호 2차·4차 아파트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다!
3.3㎡당 190~210만원대

저렴한 분양가 | 쾌속교통 | 윈스톱 교육환경

선착순 계약중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윈스톱! 교육중심의 명품학군에 위치!!

- 삼호유치원(공립시설) 및 삼호초등학교 인접(도보 5분)
- 도보 약 10분거리 삼호중학교(약 700m)

현대 삼호에서 누리는 품격높은 라이프 커뮤니티!!

- 단지인근 종합문화시설(한마음회관)
- 체육시설(수영장, 휘트니스, 탁구장, 에어로빅, 요가)
- 문화시설(다목적 공연장, 도서관, 문화강좌, 독서실)
- 생활편의시설(롯데슈퍼, 병의원, 은행, 학원, 사우나 등)

자연과 생활환경! 무엇보다 빠짐이 없는곳!!

- 단지 바로 앞 갈마산 공원 및 신촌 저수지 둘레길의 힐링 라이프
- 근린생활시설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 분양문의 061) 460-480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한마음회관 2층 분양사무소

면적	평당	매매가	보증금	전세금
50.93㎡ 453세대	39.8㎡	19,800원	3,980원	15,820원
59.75㎡ 798세대	39.7㎡	19,800원	3,970원	15,830원

면적	평당	매매가	보증금	전세금
49.98㎡ 240세대	39.8㎡	19,800원	3,980원	15,820원
59.85㎡ 96세대	39.7㎡	19,800원	3,970원	15,830원